



창사 57주년 광주일보 캠페인

세계로 뻗는 '국가대표 입맛'

⑧ 보성 녹차

브랜드 시대 연 선두주자

상 훤플고 우주식품 선정

올 지역경제파급 효과 1조

'보성녹차'는 녹차 브랜드 시대를 연 선두주자이다. '보성녹차'라는 브랜드 하나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내시장을 평정하더니 이제는 세계시장의 주인공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보성녹차'는 지난해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이 탑승한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의 우주식품으로 선정됐다. 또 세계 명품브랜드 대상, 국제명차품평회 금상·은상, 세계녹차 콘테스트 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브랜드 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품질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제유기인증 기구인 네덜란드 CUWG(Control Union World Group)로부터 차분야 최초로 국제유기인증(18농가, 1천275㏊)까지 받아 내 유럽과 미국, 일본 등 국제유기인증을 모두 획득하는 폭격을 올렸다. '보성녹차'는 유기인증으로 국제적 신뢰성과 명성을 함께 얻게 돼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 '제2의 보성녹차 전성시대'를 앞두고 있다.

'보성녹차'가 90년대 전남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로 출발해 꾸준히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한 품질관리 덕분이다.

명품 녹차를 생산하기 위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의 업무협약을 맺어 차 생업 및 녹차 가



피부보습 및 항균효과가 뛰어난 녹차비누 <위>와 녹차잎을 미세하게 갈아 만든 가루 녹차<오른쪽>

공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녹차 및 가공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 전국 최초로 지역특산물 품질인증제도인 지리적 표시 제1호(농산물)를 획득했다.

지난해부터는 보성군수가 품질을 인정해주는 군수품질인증제를 시행, 보성에서 생산된 차 제품에 대한 임류농약검사, 생산 이력 관리, 친환경 인증 등의 품질관리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녹차를 테마로 한 다양한 개발전략이 녹차 시장에 꾸준히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녹차 재배(1차)는 물론 가공품 개발 및 생산(2차)과 관광·서비스 산업(3차)이 어우러진 '복합 6차 산업'으로 키워나가면서 고용이 늘고 지역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보성지역에만 81개의 녹차 관련 업체가 있으며, 올 7월 시중에 판매될 예정인 '녹차식 용유'(500㎖·4천700원) 등 녹차 관련 연관제품 만도 80여 개가 생산되고 있다.



녹차 블이 일기 시작했던 95년 518㏊(251농가)였던 재배면적도 지난해 1천164㏊(1천97가구)로 227%나 늘었으며, 95년 2천억원이었던 지역경제파급효과도 올해는 1조원까지 내다보고 있다.

보성녹차특성화사업단 조삼형씨는 "보성녹차 친환경 인증면적을 올려까지 1천148㏊로 전체 면적의 9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녹차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에도 매출 1천억 벤처 탄생

심포니에너지·KC(주) 1천억 클럽 가입

광주·전남에서도 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벤처기업이 탄생했다.

중소기업청은 11일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1천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벤처기업 2곳이 '1천억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태양광 모듈생산업체인 심포니에너지가 지난해 1천27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전남에서는 수산화알루미늄을 생산하는 KC(주)가 1천 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1천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벤처기업 수는 ▲2006년 102개 ▲2007

년 152개 ▲지난해 202개로 꾸준히 늘었지만 광주·전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벤처기업이 119개(59%)로 가장 많았고 전년(100개)보다 19개 늘었다.

심포니에너지의 경우 지난 2004년 평동공단에 설립된 태양광 모듈생산업체로, 2004년 설립된 뒤 매년 매출액이 수직 상승했다. 지난 2005년 138억원→2006년 384억→2007년 738억원으로 매출이 뛰었고 지난해 1천억원을 넘어서었다.

심포니에너지 정진환 차장은 "지

난해 강진·해남·영광의 태양광발전소에 공급하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매출액이 크게 올랐다"면서 "올해는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해 1천500억원의 매출 목표액을 달성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대불산단에 위치한 KC는 전년도에 비해 41.58%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1천억원 클럽에 가입했다. 지난 2001년 한국종합화학공업(주)에서 공장을 인수한 국내유일의 수산화알루미늄 제조업체다.

상·하수처리제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면서 매출액도 지난 2007년 708억원에서 지난해 1천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33개 대기업

퇴출·워크아웃

30개가 넘는 대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퇴출 대상으로 결정됐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433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마치고 33개사를 워크아웃(C등급·부실장 후기업) 또는 퇴출(D등급·부실기업)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D등급은 11개 정도다.

이들 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영업활동과 관련한 현금흐름·マイ너스 등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 경영 전망도 불투명한 곳이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주체권 은행별로 2~6개 대기업에 C와 D등급을 매겼다.

/연합뉴스

기아 신차 '포르테 쿠퍼' 시판 개시

기아자동차의 신차 '포르테 쿠퍼'(FORTE KOUPE·사진)이 11일부터 본격 시판됐다.

스포츠 세단인 포르테 쿠퍼는 지난해 뉴욕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카 쿠퍼(KOUP)을 기반으로 26개월의 연구 개발기간과 95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신차다.

이 모델은 포르테 4도어와 플랫폼은 같지만,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외관, 쿠페 스타일에 어울리는 사이즈, 첨단 편의사항이 대거 적용됐으며, 차명에 쓰인 '쿠퍼'(KOUP)은 기아차(KIA)의 영문 첫 글자와 쿠페(Coupe)가 결합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본점(062)227-9940

부산점(051)521-1111

충청점(062)227-9970

순천점(061)752-9940

화포점(061)262-9200

의산점(063)851-242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끌립니다. 2. 편리합니다. 3. 편안합니다. 4. 편리합니다.

국제보청기

www.kwbj.com

신 행 만 내

보청기 전문점

코웨아 모토캠핑
전통 30% 할인 행사
6월 18일
온라인 쿠팡에서
온라인 쿠팡에서

보청기 전문점

코웨아 모토캠핑
전통 30% 할인 행사
6월 18일
온라인 쿠팡에서
온라인 쿠팡에서